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축일

기도서 233면 (A해)

제1독서: 집회서 3,3-7.14-17a

제2독서: 골로 3,12-21

복음: 마태 2,13-15.19-23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아
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
엘 땅으로 돌아왔다”

(마태오 2, 21).

강론



신자 가정이라면

이 병 호 신부

내가 아는 한 가정의 저녁기도 장면이다. 먼저 기도서
에 나와 있는대로 간단한 저녁기도를 바친다. 그 다음에
는 몇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그 배의 주인 양반으로
보아서는 어머니)를 위한 연도를 바친다. 이어서 가족이
둥그렇게 자리를 고쳐앉은 다음 대형 목주 하나를 같이
들고 로사리오 기도를 바친다. 각 단마다 기도지향에 따
르는데, 제일 첫 단은 멀리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따
이들을 위해서, 두번째 단은 학력고사를 앞두고 있는 들
째 딸을 위해서, 세번째 단은 어제 돌아가신 본당 교우
아무개를 위해서...라는 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서
한 대목을 같이 묵상하고 헤어져 각자 잠자리에 든다.
요 며칠 전에 가 보았을 때는 기도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다. 한국 103위 성인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며
그분들의 전구를 구하는 기도였는데, 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들 바쳤는지 온 집안 식구들이 책을 볼 필요없이
즐거워하는 것이었다. 그 기도는 원래 군에 입대한 들
째 아들이 훈련기간 동안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바치던 것인데, 그가 제대한 후에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이었다.

흔히 오늘의 가정이 대단히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들
한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문제
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한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그
가정은 마치 그런 현대의 조류가 전혀 스며들 수 없게
특별 방수 장치라도 해놓은 듯이 자녀들은 티없이 자라
고 공부 또한 잘해서 힘들지 않고 일류라는 대학을 나오
기도 하고 각자 자기의 길을 잘 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후심 또한 옛날 얘기에서나 들어
볼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때때로 심각한
어려움은 겪기도 했는데, 그래서 소위 아르바이트라는 걸
해가며 공부하고 있을 때에도 그 집의 대학생 딸은 언젠
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문제 중에서 경제적
인 문제는 가장 가벼운 것 같아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
보니 가정이 웬만큼이라도 화목하게 돌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누구는 경제적으로는 넉넉한데 부모가
이혼한 상태고, 누구는 별자중이며, 누구는 같이 살면서
도 대화가 끊긴지 오래고...”

가정마다 참 많고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때로
는 그것들이 서로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어디서부터 풀
어가야 할지를 도저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평소엔 전 식
구가 같이 모여 기도를 함께 하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
인의 성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인 것 같다.
(광주 가톨릭 대학)



스포츠의 해를 보내며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그런데 왜 이다지도 허전한가?
마치 잔매를 연속 두들겨 맞은 사람처럼 온 몸이 나른하
고 머리조차도 멍하다. 어떤 때는 자신이 살아 있는 것인
지, 아니면 구조적인 제도의 끈에 매달려 무의식적으로
버둥대는 꼭두각시인지 분별이 가질 않는다. 어쩌다 이
끝이 되고 말았는지?

지난 한 해에는 화제거리도 많았었다. 그 가운데 배놓
을 수 없는 하나는 아시아 운동회 이야기다. 그래서 어
느 신문의 표현대로 지난 한 해는 「스포츠의 해」였고,
결하여 「스포츠 재벌」도 등장했다. 직업선수가 돈을 벌
이 재벌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아시아 운동
회는 아마추어 선수에게도 일확천금의 기회를 주었다.
메달 수·국민들의 의식수준·국위선양, 아무리 떠들어
보아도 결국 그 결산서에는 잃은 것이 더 많이 기록될
수 밖에 없는 한 해였다.

그런데 요즘을 충격울 던져준 신선한 화제가 하나 있
다. 역대 최고의 유혹을 뿌리치고, 돈보다 스승을 택한 한 배
드민턴 선수의 이야기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금메달잡
이 되라”는 스승의 지도로 세계 제1인자가 되었고, 끝
내는 “선생님의 지도로 이만큼 성장했으니 이제 보답할
차례”라고 선언한 것이다. 장하다! 살맛이 난다! 참으
로 싱그러운 활력소다. 그러나 늘부같은 욕심이 양 불에
더덕더덕 붙어 디룩거리는 소위 이 시대의 지도자들, 그
들은 어쩌면 이 어리숙한(?) 젊은이를 비웃을지도 모른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 시대가 아무리 암담해도 우리에게에는 희망이 있다.
바르게 가르치는 스승과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제자가
있는 한은 말이다. 바른 가르침을 주어도, 마땅히 마음
을 비워야 할 사람들의 귀가 먹고 양심이 문을 닫고 있
으니 문제로다. 한 해를 보내며 더욱 뜨겁게 성찰하고
기도하자.

순정이 산책



축하합니다

내가 당신을 찾습니다

주님, 아직도 가야만 할 길이
 창창히 남아있는 저의 젊음이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내 남은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잘 살지 아니하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잘 산다는 것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사건과 지극히 우연한 일들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이곳에서 무엇인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당신과의 만남으로
 당신과 함께 생활함으로써만 이뤄진다는 것을
 늘상 깨닫게해 주소서.

사랑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초청이 필요하듯
 당신 편에서 당신을 나에게 열어주시고
 내가 자유로이, 적극적으로 당신께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시오.
 끝으로 당신을 찾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되며
 당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이웃은 나를 당신께로 이끄는
 고마운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성서교실 ⑦

내가 내 아들을 에집트에서 불러내었다(마태 2:15).

마리아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바쳤을 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했던 무서운 예언(루가 2:34)은 그후에 얼마 안가서 문자 그대로 실현되었다. 예수에 대해서 무서운 반항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대왕 헤로데의 반항이었다.

예수는 나자렛 목수의 어린애였다. 헤로데는 팔레스틴 전 영토를 지배한 대왕이었다. 그가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은 어린애의 팔 하나 움직일 정도의 노력도 필요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느님이 현존(現存)해 계시는 세계에 있어서의 상대는 그렇게 만만하지 아니한 것이다. 때로는 상황은 정 반대일 수도 있다. 여기에 인생의 흥미가 있는 것이다. 대왕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어린애가 이길 것인가? 하느님이 패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패할 것인가? 우리는 이 흥미있는 한판 싸움을 보게 될 것이다.

박사들이 떠나자 마자 밤에 하느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의 생명이 위태로우니, 에집트로 도망가라고 말했던 것이다. 요셉은 즉시 주저함이 없이 아내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날 밤으로 에집트로 떠났던 것이다. 성서는 여기서 「내가 내 아들을 에집트에서 불러내었다」(호세 11:1)는 말씀이 실현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후 요셉은 헤로데가 죽었다는 소식을 꿈에 주의 천사로부터 받고 에집트에서 나왔다. 그러나 악한 왕 아르켈라오가 유다왕이라는 말을 듣고, 요셉은 나자렛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싸움은 별 힘 안들이고, 예수의 승리로 끝나고 만 것이다.

「세계 역사는 곧 세계 심판이다」라고 설리는 말하고 있다. 살아계시는 하느님이 지배하는 세계 역사는 말하자면 하느님의 심판기록이다.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 안에서 하느님의 확실한 심판이 보여지는 것이다. 세계 역사는 예수 대 헤로데 싸움의 역사인 것이다. 예수가 승리한 이상, 우리는 「무적」(無敵)이다. 그런데 우리는 병, 가난, 인간의 힘, 기타를 두려워 하고 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 해야 할 분은 하느님이다.



보신탕·메기탕·백숙·통개
 ·오모加里·토끼탕·추어탕
 및 주류일절

대추나무집

진 창 길(바오로)
 김 복 순(가타리나)

완주군 구이면 향가리 마을
 (구이 성덕다리 옆)
 전화 82-6019

전강식품 : 영지버섯

*영지의 효능 : 암·당뇨·간염·동맥경화·고혈압·중풍·만성기관지염·관절염·신경통·위장병·신경쇠약·알레르기

*직접 재배하여 저렴하고 양도 더드립니다
 *주무 배달해 드립니다. 선물용도 있습니다

함 열 영 지 농 장

전북 익산군 함열읍 동지마을(익산부화장 옆)
 전화 : 이리 6-1107. 전주 75-2629
 한 경 수(다두)·최 행 복(테클라)

전북의료조합 지정

김 생 기

산부인과

전문의 김 바오로
 신 실비아

전주 ☎ 6-6077
 (조흥은행앞 윤의과 내)

교 구 소 식

1. 신년 교례회 : 1987년 1월 2일 오전 11시, 장소-가톨릭센터
2. 제 2 학기 교사학교 개강 : 일시-1987년 1월 12일(월)~1월 19일(월) 매일 오전10시~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터 교육관 강의실
 내용-교리교수법·성서·전례·그리스도론·구원론·교회론·마리아론·성사론·한국교회사·윤리신학·청소년이해·레크리에이션·청소년활동·리더쉽·상담지도론·프로그래밍, 수강료-2만원(자료 포함), 단 점심은 각자해결
 대상-초등부 교리교사 및 중·고 지도자
 접수-1987년 1월 6일(화) 오후 4시까지 교육국, 접수수 70명
3.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총 충만 대피경 : 일시-1987년 1월 2일(금) 9시40분~1월 3일(토) 오후 5시, 장소-전동성당, 참가비-1천원
4.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일자 연기안내 : 1월 1일 첫목요일 피정을 1월 8일로 연기함
5. 1월중 군중후원회 웰레미사 생략 : 1월 31일 오후 3시 총회 예정, 장소-가톨릭센터
6. 자선의 만남 일일찾집 : 가난한 마음, 그대 사랑앞에
 일시-87년 1월 2일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가톨릭센터 휴게실
 주최-전주교구청 여직원 '반딧불' 모임
7. 교구청 신정 휴무 안내 : 1월 1일~3일
8. 착한 목자 수녀회 성소모임 : 대상-성소에 관심이 있는 미혼여성
 일시-12월 28일(매월 비제주일) 2시~5시, 장소-전주 가톨릭센터
 주최-착한 목자 수녀회(전화 (02) 463-8055)

10만인 성지순례

1코스 : 전주 숲정이 → 치명자산 (오후 1시~4시)

일	요일	담당신부	일	요일	담당신부
28	일	김환철신부	4	일	김동준신부

※ 가정기도 독서 : 시편 90, 7~17 마태오 1, 13~17

♣ 잡 간 !

☆ 고마운 정(情) -,

이리에 사는 몇몇 신자들이 은퇴하신 신부님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보내왔다. 추운 겨울에 내의라도 한벌씩 사드리란다.

고마운 정이 오히려 서글퍼진다. 왜 그럴까?

잊혀져 가는 사람처럼 슬픈 사람은 없다고, 어느 시인은 읊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혹시 내 사랑을 더하지 못했거나 아니 내 마음 안에서 어느덧 잊혀져 가는 사람은 없는가 뒤돌아 볼적해야 할 때다.

새삼스럽게 생각나는 사람들, 그동안 무관심 속에 잊혀져 있던 사람들에게 새롭게 따스한 사랑의 불을 일으켜야 하리라.

또 한 해를 보내며, 젊은 사제생활 동안 우리와 맺었던 따스한 정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조용히 남은 삶을 기도 속에서 보내시는 은퇴신부님들을 기도중에라도 기억하자.



성훈 치과

관봉도로 사거리
(전일관광 2층)
☎ 82-9900
최성훈(빈첸시오)

☆ 축! 개원

김이비인후과 의원

김형겸(빌리버)
남원시 용성외과 앞
☎ 32-7117 · 32-7116

전북 의료보험조합 지정 김안과 의원

부설 : 신세계 안경
국제 콘택트렌즈

원장 김효열 · 전은주(베로니카)
전주 코야백화점 옆 · 중앙성당 앞
전화 74-3020

사조참치 전북대리점

초저온(-55°C)
무공해 참치!
횡감참치, 알, 내장

숲정이슈퍼마켓

김원겸(시릴로)
전화 3-3550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 대여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③ 2496 ② 8653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총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용태
사.사 2-7032 보좌신부 김기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인석

- ☆ 평화의 미사: 1월 1일 오후 7시
1. 송년미사: 31일 저녁 10시, 모두 참여하여 한해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보다나은 한해가 되어주길 기원합니다.
2. 금주는 가정주간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여 새해에는 우리들 가정에 더욱 많은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3. 신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사목회 각 분과의 사업계획서를 속히 제출합니다.
4. 부녀회 월례회: 30일 어머니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5. 교무금을 속히 완납합니다: 아직 교무금 완납을 못하신 가정에서는 속히 완납합니다.
6. 설전권김비: 미봉전자는 속히 봉헌해 주시고, 명부 1월 중에 공개해 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불우이웃을 위해 라면 10박스를 제공해 주신 화영 슈퍼의 윤철호(비신자)께 감사드립니다.
8. 은총의모후 쿠리아 설립기념식 거행: 28일 12시 장소-인후아파트 성당
9. 금주전례: 해설-전병구, 독서-봉헌-문명석 부부 신자기도-윤석연 부부, 촛불봉헌-손소부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봉헌-매기창 부부 신자기도-김진희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99,320원 교무금: 5,124,000원
신축금: 352,000원 감사헌금: 82,000원
아파트 봉헌금: 220,830원 교무금: 1,207,000원
신축금: 1,185,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사목회장 김성원
수녀원 2-5238

- 1. 축 영명! 본당신부님 많은 기도와 협조바랍니다
영명축하식: 오늘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 후
3. 재속형재회(삼회): 오늘 오후 2시
4. 송년미사: 31일 저녁 10시
5. 1월 1일 천주의 모친 마리아 대축일 안내: 오전 9시 10시30분, 저녁 7시 미사
6. 주일학교 방학: 1월 말까지 어린이미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7. 예비자교리: 수녀님반-1월 11일부터 시작
신부님반-1월 15일부터 시작
8. 교무금 미수 완납바랍니다
9. 50주년 기념행사 및 본당공사헌금: 10만원-박종현·오홍순, 5만원-신순주·이복원·이석동, 3만원-오분순·김영자·서분일·서남해·이승만·문선오, 2만원-양정래·이숙자·김순례·허애자·김방용·오이수·이복립, 1만원-김순자·김기욱·박종기·곽윤상·박상규·김정래·김정희·김정선·황일임·이영림·김영철·이복주·허규순·임덕진·문선순·양동석·조형순·이명순, 5천원-강양남·이담오·조숙자·송삼순·정삼순·윤순자·이승현·안중기·나애순·강영철·안종철·곽영순·김동일·김경순
계-920,000원, 누계-34,519,000원
10. 축! 결혼: 12월 30일 12시
신랑-최종국군, 신부-김성순양
금주 청소-월: 최인의의 탁pr, 토-자비의 모후pr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오장수 ②강주호
봉헌-김동균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천 건 ②이상인
봉헌-강희술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78,640원 교무금: 1,501,65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삼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정우

- 1.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미사 10시30분, 오후 3시
금년부터 교회가 지정하는 의무축일입니다
※ 신자 여러분의 빠짐없는 미사 참여를 바랍니다
2. 성체감복: 1월 1일 저녁 7시
3. 감사: 성탄행사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 4. 순정이 은인: 최상우-1구좌
5. 50주년 헌금: 2만원-김춘실·황옥섭·이석남, 1만원-박영례·강순용·김철중·박순인·최상윤·문대규·박복남, 9천원-정당섭, 5천원-임장권·윤선례·도영철·허성기·김경재·한동관
계-169,000원, 누계-608,000원
□ 지난주 봉헌금: 133,780원 교무금: 123,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덕찬
사무실 사목회장 김환용
수녀원 2-2276

- 1. 자모회: 본당-1월 3일 오전 10시30분
평화동-4일 오전 10시30분
2. 쿠리아: 1월 오후 3시
3. 돈보스교회: 3일 오후 2시
4. 별성체: 6일 오후 2시
5. 축! 영세식: 본당-51명, 평화동-26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 사목회 임원개편: 회장-김환용, 부회장-김한기, 총무-강기호, 선교부장-김명웅, 전례부장-김배근, 계경부장-박형석, 교육부장-진성복, 청소년부장-민병석, 사회복지부장-유용산, 애령부장-김기업, 구역부장-윤성순
7. 감사: 성탄 꽃대금 2만원 기증-익명
8. 금주전례
본 당: 해설-김은경, 독서-①김한기 ②장현주
봉헌-제10반장 가정
평화동: 해설-박명환, 독서-①김화영 ②강수중
봉헌-제6반장 가정
차주전례
본 당: 해설-고정수, 독서-①강기호 ②유용산
봉헌-제7반장 가정
평화동: 해설-문치구, 독서-①정형석 ②박형석
봉헌-제8반장 가정
□ 지난주 봉헌금: 본당-305,800원 평화동-136,810원
계-442,610원 교무금: 1,799,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치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삼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병오
베지아 사무실 83-5085번

- 1. 평화의날 대축일 미사: 1월 1일 (주일미사와 동일)
2. 유아세례: 1월 2주 토요일(10일)
3. 레지오 마리아 피정안내: 1월 2일 9시40분~1월 3일 17시, 장소-전동성당
참석대상-모든 교우들(예비교우 환영)
4. 성마리아 쿠리아: 오늘 오후 2시
성가정회: 28일 10시 미사후, 교도소방문 500명분 준비에 감사
5. 베소라성서 교육: 희망자는 사무실에 접수바람
6. 방ziger 심회: 다음주 오후 1시30분
7. 예비자교리 안내: 일요일(성인반)-1월 2주부터 시작(학생반)-1월 2주부터 시작, 수요일(직장인)-2월 1주부터 시작
8. 50주년 헌금: 현재까지 신입 안하신 세대는 연말안에 빠짐없이 신입합니다
9. 오늘 50주년기념 2차헌금 있습니다
10.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오경미, 독서-①이주영 ②최정석
8시 30분: 해설-손미라, 독서-①강신일 ②조종기
공식미사: 해설-최종만, 독서-①이영태 ②김홍기
□ 지난주 봉헌금: 1,000,140원 교무금: 5,549,50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종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정선
수녀원 2-4804

- 1. 축하합니다! 성탄 영세자: 162명
2. 예비신자 모집: 개강일-1월 11일
3. 주부 성서대학: 내년 2월말까지 방학
4. 특별헌금: 익명-10만원
5. 축! 결혼: 1월 3일 12시, 전동성당
신랑-한병용(안셀모), 신부-김경희(아가다)
6. 유아세례: 오늘 10시, 자모회: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774,640원 교무금: 4,995,500원